

김 녹녹함 잡았다...김 가공 'AI 천일염' 개발·상용화

신안 꾸지뽕농업법인, 스마트염전서 간수 함량 등 정밀 제어 수입 소금 대체...김 산업 공급망 재편·산업 구조 강화 기대감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김 산업이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의 농업법인이 김 가공용 전용 천일염을 개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신안꾸지뽕농업법인(대표 장용조)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가동하는 '신안스마트염전'에서 김 가공용 전용 천일염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섰다.

그동안 김 가공업체는 천일염에 포함된 간수(염화마그네슘 등)의 삼투압 작용으로 김이 녹녹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상당량의 수입 가공 소금을 사용해 왔다. 이는 김 산업이 세계적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료 중 일부의 해외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에 개발된 김 가공용 천일염은 간수 함량과 결정 구조를 공정 단계에서 정밀 제어해 김 식감 유지와 저장 안정성을 고려한 가공 적합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김 산업에서 사용되던 수입 가공 소금의 대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산 원료화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과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내형 AI 스마트 염전, 전 공정 데이터 기반 관리

신안스마트염전은 기존 노지 염전과 차별화된 실내형 AI 지능형 스마트 염전 시스템이다.

염전은 특수 비닐하우스 및 에어돔 기반 구조로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며, 해수는 최적 수심에서 취수 후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유입된다. 이후 AI 시스템이 염도·온도·습도·풍속을 자동 제어해 증발과 결정을 관리한다.

스마트 소금의 주요 특징은 해수 염도·기상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단계별 염도 농축 제어(증발→결정 자동화), 무인 자동화 수확 시스템, IoT 기반 원격 운영 및 생산 이력 관리, 전기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 적용, 재생에너지 활용 지향 구조 등을

거쳐 생산된다.

이를 통해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중 균일 품질의 친환경 스마트 소금 생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해수 유입부터 결정·수확·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 자동화를 넘어 산업형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산업과 결합, 국가 전략 원료 산업 가능성 김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 식품 산업으로 성장하며 '검은 반도체'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소금은 수입 가공소금에 의존해 왔다.

김 가공용 전용 천일염의 상용화는 이러한 수입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전략 식품 원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천일염 산업이 스마트·친환경 생산 체계로 고도화될 경우, 이는 품목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김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원료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산업에 국



친환경 스마트 염전 채염하는 모습(왼쪽)과 스마트 염전 외관.

내산 친환경 스마트 소금이 결합하면 수출 주력 식품의 공급망 안정성과 ESG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ESG 친환경 경영과 지역 상생 모델 실현 신안스마트염전은 태양·바람·지열 등 자연 에너지 활용을 지향하며,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친환경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실내형 설계를 통해 외부 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고, 단단계 해수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위생 관리 수준을 높였다. 이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ESG 경영 전

략과도 연결된다. 김 가공용 소금 수요가 확대될 경우, 신안군 지역 염전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가공-브랜드가 연계된 지역 가치 사슬(Value Chain)이 형성되면, 부가치의 지역 환류 구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용조 대표는 "김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략 수출 산업"이라며 "국내산 친환경 스마트 소금으로 원료 공급망을 재편하고, ESG 기반 지역 상생 모델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기독교 근대역사 거점 만든다...서남권 종교관광 신호탄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추진

목포시가 목포권 근대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문화 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남권 종교관광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최근 근대역사관 내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시 방향과 구성 계획을 공유하고, 역사관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목포시는 1898년 전북 전주군산에 이어 전국에

서 세 번째로 미국 남장로교선교부가 설립된 지역으로, 한국 근대사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다.

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지역 정체성을 담은 특화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은 복교동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02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와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 기념사업회의 민간 재원을 활용한다.

근대역사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전시실을 비롯해 미디어아트실, 체험실, 상점, 사무실, 뮤지엄숍, 카페 등 복합 문화·

전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포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시 콘텐츠를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하고, 단순한 전시시설을 넘어 지역의 근대사와 종교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함께 조망하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목포시는 오는 4월 시공사 입찰을 거쳐 5월 중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목포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일요일 해남서 밥 먹고 환급받자

군, 매달 350명에 30%...1인당 월 최대 10만원

해남군이 매주 일요일 해남에서 음식점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 3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해남군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매주 일요일 관내 일반 음식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을 통해 350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요일에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영수증을 촬영해 신청하면 추첨을 거쳐 이용 금액의 30%,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해남미스포인트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카드 충전)으로 돌려준다.

이벤트 기간은 10월까지다. 이벤트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군은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내 일요일 영업 음식점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업주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홍보가 더해진다면 일요일 외식 문화가 정착돼 침체한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620억 투입 '통합 돌봄'...어르신 맞춤형 복지 시동

고령자 복지 주택·홀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 등 지원

완도군이 올해 620억 원을 투입해 '완도형 통합 돌봄 체계'로 어르신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7383명으로 전체 인구(4만 4613명) 대비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1.6% 증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오는 3월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요양, 주거환경, 돌봄 등 5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도 620억원 사업비를 투입, 1만 4750명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21억원을 투입,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과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완도군 장수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홀로 사는 취약계층 어르신 163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은 물론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대학 운영, 경로식당과 저소득 노인 무료 급

식 지원한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가구 1312세대에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화재 감지기 등 장비를 설치해 화재, 질병 등 응급 상황 발생 때 119에 자동 신고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무주택 고령자들을 위한 '완도형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도 추진 중이며, 권역별 노인 요양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살뜰히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김희수 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호평

진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진도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평가에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민관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은 "민선 8기 들어 '다함께 잘사는 산업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

기는 행정혁신' 등 5대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군은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전략 위원회'를 운영, 관광·교통·에너지·인구 등 분야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찾아가는 군민소통 사랑방'과 정책 연구모임 '상상이상' 등을 운영해 왔다.

군은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AI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24시간 판매하고 'AI 기반 실시간 반응형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농수산특산물 유통과 판매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소개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민 삶의 질 조사

시, 내달 6~18일 실시

목포시가 다음 달 6일부터 18일까지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만족도,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분석,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관내 84개 조사구, 100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전국 공통 10개, 전라남도 공통 20개, 목포시 특성 15개 등 총 4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여가·문화, 사회복지, 주거·교통, 주요 정책 추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원 28명을 투입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시 누리집과 SNS, 각종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목포=박명길 기자 ky@kwangju.co.kr

해남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30만원 지급

3월 23일부터 신청

해남군이 초·중·고교 입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축하금을 지급한다.

해남군교육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전액 군비를 투입해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초등생에 이어 작년부터는 중·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남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교 최초 입학생이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해남군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면 되며, 1인당 30만 원씩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교육재단 이사장 명령관 해남군수는 "입학 축하금 지원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하나로 관내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광 묘량농공단지, 수도권 제조기업 유치 본격화

영광군이 수도권 제조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묘량농공단지 분양 홍보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가 나섰다.

영광군은 수도권 내 산업용지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 강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해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분양가와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를 갖춘 묘량농공단지를 대안 입지로 제시하고 있다.

묘량농공단지는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일원(A=213,647㎡)에 조성된 농공단지로서 식료품·금속·전기 등 제조업 중심의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할 환경이 마련됐다.

특히 조성원가는 평당 16만5000원(평당 54만5000원)으로,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산업용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규모와 투자 계획에 따라 다양한 면적 선택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투자에 유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감도.

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분양 대상 업종, 필지 현황, 계약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061-350-546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묘량농공단지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도권 제조기업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빠르게 이전하고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용삼 기자 2yong3@kwangju.co.kr